

인터뷰

티파니 영 "진흙 없이는 연꽃이 없다고 합니다"

오는 3일 서울 콘서트 국내 무대는 3년만에

나팔꽃처럼 차려 입은 그룹 '소녀시대' 멤버 겸 가수 티파니 영(30)이 카메라 앞에서 방긋방긋 웃었다. 30도가 넘는 한낮임에도 반달 모양의 눈웃음을 보이고 있자니, 무더위가 사라졌다. 사진 기자의 요청에 연신 웃으며 포즈제닉한 자세를 취하던 그녀는 "어제 너무 늦게까지 연습했나, 발목이 아프다"고 너스레를 떠났다.

8월 1일은 티파니의 생일, 여름은 그녀의 계절이다.

"제가 8월생이고 소녀시대 데뷔도 8월이에요. 여름 같이 열정적인 사자 자리죠. 여름은 선물 같은 계절이에요. 생일도 있지만 데뷔 기념일(8월5일)이 돌아올 때마다 다시 태어나는 것 같아요. 이 축제의 계절, 한국에서 팬들과 함께 보내서 신나죠"

티파니 영은 8월 3일 서울 광장동 예스24 라이브홀에서 단독 콘서트 '티파니 영 오픈 하츠 이브'를 연다. 올해 상반기 미국에서만 8차례 콘서트를 연 그녀지만 국내 무대에서 콘서트를 여는 것은 3년 만이다.

특히 단지 가수가 아닌, 싱어송라이터로서 무대에 본격적으로 오르는 것이라 더 설렌다. "3년 전 콘서트에서 부른 곡 중 제가 작사, 작곡한 노래는 2곡밖에 없었어요. 이번에는 제가 쓴 곡이 3분의 2가 넘어요. 비주얼 디렉팅을 넘어 곡 편곡, 영상 하나, 의상 하나, 조명까지. 담당 팀과 호흡을 하면서 디테일을 만들어가는 것이 소중하더라고요."

작년부터 티파니는 티파니 영으로 다시 태어났다. 소녀시대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를 떠나 미국 에이전시와 계약, 홀로서기를 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는 티파니의 고향이다. 2004년 이곳의 한인축제에 참가했다가 SM에게 발탁돼 한국으로 왔고, 연습생을 거쳐 소녀시

대가 됐다. 한국 이름 '황미영'에서 '영'을 따 '티파니 영'이 됐다.

작년 6월 29일 첫 싱글 '오버 마이 스킨'을 발표했고 올해 2월 첫 미국 EP '립스 온 립스(Lips On Lips)'를 발매했다. 이후 현지에서의 의미있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2019 아이하트 라디오 뮤직 어워즈'에서 쟁쟁한 후보들을 제치고 '베스트 솔로 브레이크아웃' 부문을 받기도 했다.

데뷔 10년을 넘긴 티파니도 여전히 콘서트 무대가 떨릴까. "투어의 첫 공연은 떨려요"라며 웃는다. "근데 기본 좋은 떨림 같아요. 공연장은 너무 소중한 공간이자 행복한 공간이지만 제가 책임을 가져야 하는 곳이기도 해요. 올해 하반기에는 18회나 콘서트가 잡혀 있어 신나기는 해요."

티파니는 배우의 꿈을 위해 여전히 미국에서 뮤지컬 영화 '라라랜드' 속 연기 지망생 '미아' 같은 삶을 살고 있다. 드라마, 영화 오디션을 계속 보러 다닌다. 한국같으면 별 다른 노력 없이도 캐스팅 러브콜이 쇄도하겠지만 개의치 않는다.

"소녀시대 멤버들이 계속 드라마와 영화에 출연해서 모두 챙겨보면서 많이 배우고 있어요. 미국에서도 한국 드라마와 영화는 꼭 챙겨보고 있어요. 봉준호 감독님이 '기생충'으로 칸국제영화제에서 상을 탄 것만 봐도, 한국 작품이 대단하다는 것을 깨닫고 싶죠. 저도 언젠가 잘 맞는 작품이 찾아올 거라 믿고 있어요. 그 사이 더 배우야죠. 다양한 프로젝트를 겪었고, 덕분에 성장을 했어요."

밝고 밝은 소녀시대 티파니의 걸모습만 보고 '온실 속 화초' 같다는 오해를 한때 하기도 했다.

"평상을 하다가 읽은 책 구절인데 '진흙

없는 연꽃이 없다'가 요즘 들어 인상적이었어요. 성장통 속에서 변화와 발전이 있다는 거죠. 무엇인가 불편하고 어색한 상황이고 지금 가는 길이 내 길처럼 느껴지지 않아도, 괜찮다고 할 수 있는 이유예요. 미국에서 혼자서 알아가는 과정이 많아요. 반대로 좀3때 미국에서 한국에 온 저 역시 몰랐던 것이 많았죠. 그것들을 꼭꼭 이기고, 즉 진흙을 거치고 연꽃이 될 때까지 노력해야죠. 마침 제가 요즘 듣는 플레이리스트의 첫 곡도 박주호 선배님의 '야행화'예요. 근데 이런 이야기는 제 이야기만이 아니죠. 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는 분들과 함께 이겨내고 싶어요."

뉴스스



방탄소년단 천하, 빌보드 '소셜50' 장기집권 2년

그들 '방탄소년단' (BTS)이 미국 빌보드 '소셜 50' 차트에서 2년 넘게 정상을 지켰다.

지난 7월 30일(현지시간) 빌보드가 발표한 8월 3일자 차트에 따르면 방탄소년단은 '소셜 50'에서 107주 연속 1위를 차지했다.

2017년 7월 29일자 차트부터 연속으로 정상을 질주했다. 앞서 '소셜 50'에서 지난해 8월 저스틴 비버가 세운 최장 연속 1위 기록(56주)을 이미 돌파했다. 현재까지 최장 기록을 이어오며 세계적인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2016년 10월 29일자 차트에서 첫 1위에 오른 이후 통산 137번째 기록도 함께 유지 중이다.

방탄소년단의 최근 앨범 '맵 오브 더 솔 : 페르소나'는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 77위에 올랐다. 이 차트에서 15주째 큰 폭의 순위 변동 없이 차트 진입에 성공했다. 이 앨범은 '블 앨범 세일즈' 11위, '인디펜던트 앨범' 5위, '월드 앨범' 2위도 기록했다.

뉴스스

"슈돌, 나은·건후 출연 분량 늘려달란 적 없다"

축구스타 박주호(32·울산 현대)의 부인 안나 박(23)이 KBS 2TV 예능물 '슈퍼맨이 돌아왔다' 분량 논란을 해명했다.

안나는 지난 7월 30일 인스타그램에 "몇몇 언론사가 내가 영어로 단 댓글의 뉘앙스를 한국 독자들에게 잘못 번역해 전달했다. '슈퍼맨이 돌아왔다' 속 우리 가족의 비중이 나에서 건후로 옮겨가는 것에 관한 질문을 받았고, '엄마로서 조금은 슬프다'고 이야기했다. 그것이 전부"라며 "몇몇 보도는 글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마치 내가 아이들의 방송 분량을 늘리는 데 욕심을 내고 있는 것처럼 번역해 보도했다"고 적었다.

이어 "올해 초 (제작진과) 미팅에서 '촬영 일수를 줄여달라'고 요청했고, 더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해달라'고 요구하지도 않았다. 건후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문제다. (번역에 확신이 없다면) 차라리 내게 직접 물어보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띠로 보는 오늘의 운세

- 쥐띠**
항상 마음이 분주하고 몸이 고달프다. 지혜로 극복 가능하다. 너무 지나친 포부보다는 정도에 맞는 계획 세우는 것이 좋을 듯. 의류나 건축업 투자는 길하다. 5, 8, 11월생은 책임완수 하는 기본 날. 서쪽에서 시원하게 돌리게 될 듯.
- 소띠**
많은 일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 신경성 노이로제에 놓일 우려 있다. 마음의 휴식이 필요할 때, 자기만의 시간을 갖는 게 현명하다. 이제까지 생각 못했던 일에 곧 착수하라. 변신을 시도해 볼 만하다. 가정에 경사가 있고 혼인을 하다가 귀인을 얻을 운이다.
- 호랑이띠**
눈앞에 보이는 것에만 허욕을 부리다가 큰 것을 놓치고 땅을 치며 후회할 일 있다. 매사 진행에 분수를 지킴을 신조로 삼는다면 목표 달성은 누워서 떡먹기다. 남쪽에 있는 재물을 탐하지 마라. 자동차 투자는 길.
- 토끼띠**
사방에 이것저것 사업을 벌여 놓았으나 소득이 없으니 답답하기만 하다. 조금씩 정리하는 것이 좋을 듯. 가까이서 믿던 사람이 기만할 우려도 있다. 바, 사, 서 성세 말 믿지 말 것. 매매건 소식 올 듯. 애정은 상대에게 관심을 표하라.
- 용띠**
예기치 않던 걱정거리가 생길까 염려되니 조심성 있게 오늘을 보내라. 특히 재물이나 애정 문제로 구설이 있었으니 매사 유의하는 것이 상책이다. 바, 사, 서 성세 말 믿지 말 것. 매매건 소식 올 듯. 여자는 사색식구와 언행에 주의. 남자는 처가에 신경써라.
- 뱀띠**
가정의 화목함이 사회활동하는 데에도 활력소가 된다. 자녀들을 관심있게 지켜보는 것이 좋겠다. 자칫 자녀로 인해 본인 인기 관리나 사업에 손상이 올 듯. 3, 5, 10월생에게 실망주면 안 된다. 투기는 금물. 쉽게 얻은 것은 쉽게 잃는다.
- 말띠**
자녀에게 너무 큰 기대감을 부릴 수 있다. 부모 자식 간이라도 계산을 정확해야 한다. 나이 차이를 초월해서 사랑하는 법이니 주위를 의식하지 말 것. 투자는 식물계가 길하다. 모든 사람들이 내 마음 같지 않다. 친하다 해서 너무 믿지 마라.
- 양띠**
부담스럽고 책임질 일이 생길 수 있으니 보충이나 문서관리로 조심해야 하며 언행에도 신중해야 한다. 가정은 애정 문제로 신경 쓸 일이 있다. 유비무환하다. 뱀, 원숭이보다 돼지, 닭띠가 좋다.
- 원숭이띠**
사소한 일에 너무 신경 쓰지 않아도 될 듯. 조여 있던 나사가 풀릴 듯하다. 열심히 노력한 자에게는 풍성한 수확이 있다. 북쪽에서 행운이 올 것이다. 3, 5, 7월생 가정만은 반드시 지켜야 하니 유념할 것.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다.
- 닭띠**
시작은 어려우나 좋은 성과 있겠다. 중개업이나 건축업을 하는 사람은 소득이 있었고 귀인이 돕는 운수다. 애정에는 자신을 갖고 상대에게 힘을 주어야 공적자는 책임 완수. 투기는 금물. 매사에 사소한 일로 적을 만들어서는 안 되겠다.
- 개띠**
사춘기 자녀를 가진 부모는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운이다. 지나친 간섭보다 세심한 사랑으로 관심을 보이고 대화로 감싸주는 것이 좋겠다. 사, 북쪽 친구를 조심하게 하는 것이 자녀에게 이롭다. 부부는 일심동체인 만큼 화합이 좋다.
- 돼지띠**
남에게 지지 않으려는 면은 강하나 자신감이 약해져 우울하다. 본인은 항상 외롭고 쓸쓸하다고만 느낀다. 지금 당신은 변모된 모습으로 성의를 더해 마음을 전달할 때. 단 투기만은 삼가라. 2, 5, 11월생 지나친 신경으로 신병수.

광주만의 고유함과 독특함을 가진

광주 상설 국악 한마당



일시 2019. 3월 ~ (매주 토요일 17: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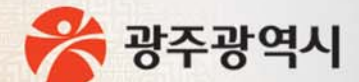
장소 광주 공연마루(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시민로 3)

내용 시민과 함께 어울려 즐기는 전통, 퓨전 등 다양한 국악공연

문의 광주문화예술회관 (062-613-8351, 062-613-3181)

※ 관람료 무료



광주광역시